

형수님의 공덕비

에세이

김명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실장



필자는 고향이 목포시 서산동 달동네다. 집 앞에는 큰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우리는 구슬나무라고 불렀다. 가을이면 노랗게 익은 구슬이 떨어진다. 먹을 수 없다. 대추라면 좋겠다고 자주 생각했다. 이제는 고향을 떠난지 40년이 넘었다.

오랜만에 고향집을 한번 찾아가 보자. 처음에 게이꼬 집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면 모퉁이에 기남이 할머니 점방이 있었다. 기남이 할머니 나이가 그때 몇 살쯤 되었을까 항상 늙게 보였다.

골목길을 두 번 돌아가면 마당이 넓은 성일이네집 성일이 할머니는 월남전에서 전사한 작은아들 “경호아”를 부르면서 마른 울음을 자주 토해냈다. 그럴때마다 온동네가 요란했다.

다시 올라 문표네 아집도, 매자네 아집도 “니오냐”면서 반기는 금심이 큰엄마도 오랜 어깨에 커다란 통나무 하나를 매고 가쁜숨을 몰아쉬며 걸어가는 동네수정이 형도 이제에는 모두 가버린 그리운사람들이다.

비틀거리며 구슬나무 집안으로 걸어들어오는 인철이 형도 술마셨다고 동생들의 싸늘한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안타깝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후회스럽다. 그리고 너무 보고싶다. 구슬나무집 변소는 왜 그렇게 자주

터져서 마치 나의 치부를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을까. 장마철이며 뒷 고랑은 왜 그렇게 자주 막혀서 홍길네 삼촌의 손길을 빌려 그 날은 없는 돈으로 달걀 반찬으로 점심준비를 하는 우리 엄마 속을 상하게 했을까. 어느 추운겨울 학교가기 위해 양말을 찾아도 제짝이 없어 짹짹을 신고 갔던 기억도, 비 내리는 아침 우산이 없어 책가방을 머리에 이고 달리기 선수처럼 달린 기억도, 한여름 건축 설계사무소 실습 출근길 여름바지가 없어 형의 두꺼운 겨울바지를 입고 또 입었던 기억들은 세상을 살면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디딤돌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요술 주머니 하나씩을 꺼내듯 그 기억들로 방패를 삼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79년 늦은 봄. 보리밥 한덩이 씹을 둘러 앉아 점심으로 때울 때 “큰병인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복수 찬 배를 안고 형과 수정이형이 함께 병원진단을 받고와서 아버지가 하신 말이다. 아버지는 진짜 몰랐을까 알고도 그렇게 말했을까. 얼마 후 자식들 곁을 영원히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어떤 사람 말을 듣고 일본 종교 남묘호랑개교를 밤늦게까지 처절하게 외치는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옆에서 함께하던 나는 눈물이 가려서 밖으로 뛰어 나왔다.

다음날 버스를 타고 옥암리 입구에서 내려 4년 전 먼저 가신 엄마 산소를 찾아 세상과 형들을 원망하면서 많이 울었다. 약국에 가서 간에 좋다는 알부민주사가격을 물어보니 8만원이라고했다. 당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받은 내월급은 6만

원이었다. 나에게는 큰돈이어서 포기했다. 그 뜨거운 여름 아버지는 알부민주사 한대를 못 맞고 엄마곁으로 가셨다.

한 달뒤 나는 하사관학교에 입대했다. 이제는 산날보다 그분들 만날 날이 더가까워져 생각이 많이 난다. 이런 아픔과 힘든 시간들은 나와 형제들 조카들까지 강하게 만들었다. 싸움터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가르침을 주었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길잡이가 되었다. 때로는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형을 원망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형 나이도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형이 가장 잘한 일은 형수를 우리 가문호적에 올린 것이다. 또 동생들과 조카들이 옆길로 새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조카들의 인간성을 바르게 가르친 일이다. 형수는 어린 나이에 형을 만나다 쓰러진 집안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만삭의 몸으로 무거운 생선통을 머리에 이고 행상을 하느라 목포 어판장을 새벽부터 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추운겨울과 더운여름 계절의 감각을 잊은채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피 눈물나는 고생을 하셨다.

그 결과 시동생들을 전부 결혼시켜 잘 살고 있고, 자식들 3명을 훌륭하게 키워내셨다. 구슬나무집 입구에 공덕비 하나 세워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그곳에 구슬나무가 있을까 구슬은 열렸을까.

뜨거운 여름이면 구슬나무 그늘에서 한줄기 바람을 기다리던 그때가 그림다. 모기가 없어서 마당 한구석에서 자리하나 펴고 누워 잠들던 그때가 오늘날따라 더욱 그리워진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7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국립공원의 기온이 55도를 기록한 가운데 방문자 센터 앞 프라이팬에 달걀이 들어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폭염이 데스밸리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이전의 기록을 깰 수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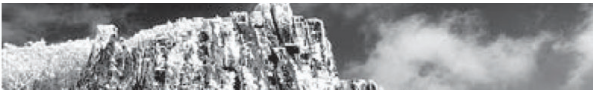
AP/뉴시스

서석대

현대는 하나의 공간에 여러 세대가 뒤섞여 살아가고 있다. 이른바 ‘멀티 제너레이션’ 시대다. 의학 발달로 수명이 길어지면서 다양한 세대가 동시대를 구성하고 있다. 각 세대는 연령으로 구분되지만, 서로 구별되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 세대별 욕망이 다르고, 생산과 소비 패턴, 선택과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다.

지난 5월 출간된 ‘세대욕망’ (대흥기획 데이터인사이트 팀)이란 책에는 올해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세대를 5가지로 구분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 1970년대 출생자를 아우르는 X세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 출생자로 구성된 밀레니얼 세대, 1990년대 후반에서 2010년 이전 출생자인 Z세대, 그리고 2010년 이후 출생자인 알파 세대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MZ’는 이 구분에는 없다. 아마도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30년의 차이가 있어 함께 뭉기엔 무리가 따르게 아닌가 싶다.

이중 가장 빠른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74년)는 전후(戰後) 고도 성장기에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연중 출생아 수만 90만 명을 웃돌았다. 저출



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때다. 이 세대는 시기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눠 연령 집단을 구분한다. 1955~63년생을 1차 세대(705만 명)라고 하고, 지난해 50대였던 1964~74년생을 2차 세대(954만 명)라고 한다. 특히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단일세대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이들이 올해부터 법정 은퇴 연령인 60세에 들어섰다.

지난 1일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내 이들의 은퇴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1차 베이비부머때(0.33%) 보다 더 큰 0.38%포인트 하락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대규모로 이탈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줄어든다는 예측이다. 보고서는 고령층의 재고용 의무화와 법정 정년 연장, 탄력적인 직무와 임금 체계 도입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했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은퇴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대다수 단순노무직 등으로 이직하는 게 현실이다. 이제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 연령이다. 우리 사회의 세대간 공감대와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

김선옥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社說

의미 있는 광주시의회 첫 여성의장 선출

협치·소통으로 광주 되살려야

광주시의회가 8일 더불어민주당 신수정 의원을 제 9대 의장으로 선출했다. 광주시의회 여성 의장은 1991년 7월 제2대 광주시의회 개원 이후 34년만에 최초다. 여성이나 소수집단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상위 계층으로 오르는 데 장애가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여전한 지금, 신 의원이 의장에 선출된 것은 대한민국과 광주의 정치사에서 의미가 크다. 시민의 기대도 높다.

이날 광주시의회는 재적의원 23명 전원이 찬반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표, 무효 4표, 기권 3표로 신 의원을 의장에 선출했다. 민주당 서용규 의원과 재은지 의원도 1부의장과 2부의장에 각각 선출됐다. 이번에 선출된 의장단에 주어진 책무는 막중하다. 6조 9042억 원에 이르는 올해 광주시 예산을 감시하고, 지역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의장을 비롯한 후반기 광주시 의회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 의회의 ‘마음가짐’도 바뀌어야 한다. 주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신 의원은 이날 ‘협치를 위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견제와 감시는 엄중하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연한 생각이다. 민선 8기 후반기, 지방자치의 격을 올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신 의원 특유의 화합력과 섬세함이 만드는 협치를 위한 노력이다.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당내 경선의 내용을 수습하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것도 광주시의회 본연의 업무다. ‘차별화된 의정’ 또한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지방의회는 오래 전부터 ‘고비용, 저효율’로 낙인찍혀 왔다. 지방의회 무용론도 심심치 않게 거론됐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역설적으로 지역소멸을 막을 유일한 대안이다. 건설업으로 시작된 위기는 지금 광주의 미래를 안갯속으로 내몰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 새로 출범한 광주시의회가 집행부와 의 협치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광주 되살리기에 힘을 쏟길 기대한다. 광주시도 의회와의 협치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호남정치 복원 시험대 민주당 전당대회

단결 통해 정치적 목소리 내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오는 8월 18일 예정돼 있다. 이미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호남 출신 지도부 선출이 관건이 되고 있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원내에서는 민형배 의원(재선)이 원내에서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초선)이 거론된다. 여기에 전북의 이성운 의원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 출신인 최대호 경기도 안양 시장도 다음 달 광주에서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지역 출신 원내·외 후보들이 거론되면서 당내 지도부 입성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지역 표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단일화 등의 정치적 결함 등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부를 자처했지만 선출직 지도부 입성에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광주의 경우 21대 국회에서는 대부분 초선으로 도전할 인사 자체가 없었고, 전남은 일부 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기반으로 도전했지만 모조리 탈락하는 수모를 안았다. 결국

민주당은 호남 민심을 의식해 ‘지명직 최고위원’을 배정하면서 호남 내부에서 지도자를 키우지 못했고, 결국 호남 정치의 자존심에 흠집을 안겼다.

이번 민주당 지도부 선거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변수들도 있다. 우선 투표에서 대의원의 비중을 낮추고 일반 당원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출규정이 바뀌었다. 또한 ‘친명’으로 분류된 지역후보가 두각을 나타낼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의 심장부라는 상징에도 불구하고, 호남은 늘 정치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8월 전당대회는 호남 정치 복원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 때마다 호남에선 현역 교체 비율이 높아져 다선 정치인이 대폭 줄었다.

하지만 정치적 개혁을 주도한 것은 호남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권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불행은 사라져야 한다. 호남이 주도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전당대회에서 결집된 모습이 요구된다. 사분오열,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할 경우 호남은 또 다시 정치적 소모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